ISSN 2288-4270 (Print)
ISSN 2733-8711 (Online)

발달지원연구

제12권 제2호 (2023년 8월)

한국발달지원학회

www.kci.go.kr

www.kci.go.kr

발 달 지 원 연 구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제 12권 제2호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입니다.

2023년 8월

한 국 발 달 지 원 학 회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www.kci.go.kr

www.kci.go.kr

발 달 지 원 연 구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제12권 제2호 / 2023. 8.

아동 자위행동 관련 변인 탐색……강혜진 · 최지영 / 1

초심상담자의 성인애착, 정서지능,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김미영 · 이혜란 / 21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KPAS-ES)의 개발 및 타당화……엄연용 · 송원영 / 45

신노년의 자기계발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생성감의 매개효과……이윤희 · 신민영 / 67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 이용과 양육불안의 관계: 상향비교와 인지적 통제유연성의 매개효과
–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이샘 · 김도연 / 83

주체성-대상성 자기관과 울분과의 관계에서 통제 소재의 매개효과……장희순 / 101

한 국 발 달 지 원 학 회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www.kci.go.kr

www.kci.go.kr

발달지원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23, Vol. 12, No. 2, 45-65
DOI: 10.22839/adp.2023.12.2.45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KPAS-ES)의 개발 및 타당화*

엄 연 용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겸임교수

송 원 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KPAS-ES)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 및 실증적인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문항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를 통해 양육불안의 구성개념과 예비 88문항을 작성하였으며 델파이 조사를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하여 총 50문항의 예비 척도를 구성하였다. 연구 1에서는 만 6세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26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역할불안(6문항), 부모특성불안(5문항), 성장발달불안(4문항), 기대불안(4문항), 교육환경불안(5문항), 경제환경불안(3문항), 지지환경불안(4문항), 7요인 31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2에서는 부모 483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부모양육불안척도의 요인 구조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양육불안척도, 상태-특성불안척도, 학령기 부모의 양육행동척도, 부모의 역할만족도척도와의 상관을 통해 준거타당도,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을 통해 학부모 역할스트레스와 부모소진간의 관계에서 양육불안이 완전 매개함과 부모생활스트레스와 부모소진간의 관계에서는 양육불안이 부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연구 의의와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양육불안, 아동기 자녀, 양육스트레스, 부모소진, 척도개발

---

* 이 연구는 엄연용(2022)의 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논문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송원영, (32992)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Tel: 041-730-5414, E-mail:song@konyang.ac.kr

www.kci.go.kr

한국사회는 정착된 핵가족화로 자녀양육의 책임이 부모들에게 집중되어있다.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경쟁의식은 입시 중심의 교육체계로 이어져 조기교육 열풍과 지나친 학구열,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다움으로 자리매김 되었다(신송이, 2016; 이원영, 1998). 유아기와 달리 아동기는 교육환경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자녀의 일상생활지도, 학습지도, 학부모참여 등 부모들에게 새로운 역할이 가중된다(Pass et al, 2017). 한국의 교육기관에서도 자녀의 학업, 행동, 인성, 학교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또래관계까지 부모들에게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경험한다(신수희, 2019: 위지희, 2014). 이러한 아동기 양육 특성은 부모들의 민감성과 불안감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자녀의 아동기로의 전환은 양육 위기로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이선희, 도현심, 2014). 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불안은 현대 부모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자녀 양육과 관련된 신경증적인 불안감을 지칭하는 육아노이로제, 자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입시경쟁으로 인한 조기교육 및 지나친 사교육에서 비롯된 돼지맘, 양육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가 되기를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키즈 딜레이, 부포세대, 등)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저출산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14; 장진희, 2021; Syazwani et al, 2020).

양육불안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육과 관련된(부모, 자녀, 환경) 요인들을 위협적으로 인지함으로써 경험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이다(Kyuichi et al, 2015; Yoshida et al, 1998). 엄연용과 송원영(2022)은 양육불안을 경험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고 그 유발요인이 다음과 같이 부모, 자녀,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첫 번째로 부모요인과 관련하여서는 부모신념으로 인한 불안, 부모의 예기불안, 부모 역할에 대한 불안, 부모의 지나친 책임감, 양육스트레스가 양육불안을 야기한다(Lee et al, 2016; Scher & Sharabany, 2005; Shigemi & Sachiyo, 2011; Yukiko, 2002). 두 번째로 자녀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자녀의 발달 및 건강에 대한 염려가 양육불안을 유발하였으며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걱정도 양육불안을 야기한다(Katherine & Henry, 1998; Lipani & Walker, 2006; Yoshida et al, 1998). 또한 학령기는 자녀 발달단계에서 경험되는 규범적인 사건이지만 부모들은 교육기관에서 요구되는 자녀의 학업 및 학교적응으로 자녀의 행동을 염려하고 자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양육불안을 경험하였다(신수희, 2019; Pass et al, 2017). 세 번째로 환경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양육비용 및 경제적 부분에 대한 염려, 양육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염려, 지지체계 부재,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와의 갈등, 돌봄에 대한 걱정이 관련되어 있었다(김선미, 김정민, 2020; Mayumi, 2008; Mikhaylova & Sivak, 2018; Sayaka et al, 2018).

한편, 양육불안은 부모의 정신건강과 자녀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먼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양육불안은 부모들의 양육부담과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감소시켰다(Hiroki et al, 2012; Mishina et al, 2012, Yuki et al, 2008). 양육불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며 부모의 삶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부모소진을 야기하였다(Mikolajczak et al, 2018; Mousavi, 2020). 부모소진은 양육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는 신체적, 심리적 탈진(burnout)된 상태로 최근 연구에서 양육불안이 부모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짐에 따라(엄연용, 송원영 2021b; Mousavi, 2020), 양육 맥락 안에서 경험되는 양육스트레스와

www.kci.go.kr

부모소진간의 관계에서 부모양육불안의 매개역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들의 양육불안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간섭과 지시, 처벌, 안전행동(지나친 통제), 회피행동(과보호)이 높았다(정계숙, 2019; Eri et al, 2019; Howard et al, 2017; Lindhout et al, 2006; Mireia, 2018; Nejra, Maria & Kari, 2018). 부모의 양육불안은 자녀의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불안, 정서지능, 또래관계,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엄연용, 송원영, 2021a; 정세진, 신나리, 2018; Gar & Hudson, 2009; Stassart, Dardenne & Etienne, 2017). 이처럼 부모의 양육불안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부모의 양육불안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국외에서 개발된 양육불안 척도들은 일본에서 개발되었으며 “건강한 부모들과 아동 21” 캠페인 및 저출산과 역기능적 양육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Eri et al, 2019). Makino(1982)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일반적 피로감, 일반적 기력의 저하, 신경질적 상태, 양육불안징후, 양육의욕의 저하, 5요인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일반적 피로감과 일반적 기력의 저하는 양육불안을 측정하는 지표로 부적절하다고 지적되었다(Yoshida, 1998). Yoshida(1998)는 기존 양육불안 척도를 토대로 어머니의 불안, 양육 만족도, 남편의 지원, 다른 사람의 양육 지원, 아동의 특성, 5요인 5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어머니의 특성불안을 포함하여 부모, 자녀,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스트레스와 우울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Tsukiko와 Tanji(2004)는 양육불안을 유아 건강 검진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개발하였으며 자기 비판적 평가, 양육인식과 양육불안, 긍정적 자기 평가, 양육지원 네트워크, 양육 문제해결방법, 5요인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별적 예방차원에서 양육불안을 유아 건강 검진 시스템에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Eri et al, 2019). 후생노동성에서도 양육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본 공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양육불안을 측정하였다. 양육불안의 주증상으로는 걱정을 주목하였으나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낮다(Hiroki et al, 2012). 마지막으로 Kyuichi(2015)는 Meta-Cognitive Therapy(MCT) 모델을 기반으로 핵심적 양육 불안, 양육 감정, 양육 시간, 3요인,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양육불안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포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3세~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만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국외에서 개발된 양육불안 척도들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 자녀요인,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였다. MCT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양육불안 척도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포괄하여 구성하였다. 그러나 국외의 척도를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적인 양육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강희경, 2003).

국내에서 개발된 양육불안 척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위지희(2014)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불안척도를 개발하였다. 인지적 측면에서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자녀와의 애착으로 인한 불안, 자녀에 대한 염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5요인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도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측정대상을 어머니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구성요인

www.kci.go.kr

에 배우자나 자녀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두 번째로, 이선남과 이정욱(2017)은 정서적 측면에서 어머니요인, 자녀요인, 배우자요인, 사회적 요인, 총 11요인 64문항으로 구성하여 양육불안을 파악하였다. 다만,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세 번째로, 신수희(2019)는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를 경험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불안척도를 개발하였다. 부모역할 불안, 교육지원 불안, 자녀발달 불안, 3요인 3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과정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기에는 활용도가 낮다. 마지막으로 오영진(2021)은 유아기 자녀(2세~6세)를 둔 부와 모를 대상으로 양육불안척도를 개발하였고 능력불안, 관계불안, 보호불안, 3요인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요인들 간의 구분이 다소 모호하고 측정대상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로 제한함에 따라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기존 척도들은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불안을 측정하기에는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국내 양육불안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양육불안 척도 개발 시 중요하고 고려할 점은 양육불안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이기 때문에 양육과 불안의 측면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양육과정모델(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에 따르면 부모요인(부모성격, 성장과정 경험)은 자녀의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경요인과도 상호 연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elsky, 1984). 아동 특성도 자녀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경요인(부부관계, 사회적인 네트워크, 직업)도 양육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육결정모델(determinants of parenting model)에서도 자녀 양육은 부모특성, 자녀특성, 가족의 경제적 자원, 가족구조/크기, 부모의 정신건강, 부부관계의 질, 친족 및 사회적인 네트워크 등 다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Chase-Lansdale & Pittman, 2002). 한편, 불안 인지 모델에 따르면 불안은 위험자극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다차원적 반응이다(Clark & Beck, 2010). 신념, 규칙 및 가정을 포함한 인지도식은 특정 위험에 대한 믿음과 위험에 대한 취약성으로 이어지고 인식된 위험을 피하려는 강한 행동 활성화를 야기한다. 신경과민, 긴장, 초조 등 주관적 경험과 관련된 정서도식들도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자동적 과정으로 경험되며 어떤 형태로의 시정 조치를 취하게 한다. 행동도식은 위험에 대하여 빠른 방어 대응을 통해 즉각적인 위험을 감소하지만 행동도식을 통해 불안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유지된다. 중요한 점은 위험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활성화되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위험으로 인식할 때 개인의 기능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Clark & Beck, 2010). 때문에 부모양육불안은 부모, 자녀, 환경적 차원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과정에서 양육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부모양육불안은 부모의 정신건강 및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한국 문화를 반영한 부모양육불안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측정도구는 부재

www.kci.go.kr

하다. 때문에 불안의 다차원적 접근에서 자녀 발달 단계 변화와 함께 수행하는 부모역할, 아동기 자녀의 양육 특성, 교육환경에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한국 문화적 특성을 포함한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를 개발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부모양육불안의 실증적인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는 어떤 요인과 문항들로 구성되는가?

둘째,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떠한가?

셋째,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의 실증적 유용성은 어떠한가?

예비연구

문항개발

1단계, 예비문항 구성은 심층 면담을 통한 부모양육불안의 경험적 자료와 문헌 연구 및 기존 양육불안 척도를 토대로 88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2단계, 개발한 모형과 문항의 적합성 및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였다. 델파이는 전문가 패널을 통해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재 도구이다(이종성, 2001).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 내용타당도, 신뢰도, 타당도, 안정도를 적용하였다(Dalkey, 1969). 전문가 패널 수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수의 패널을 구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10명에서 15명 사이의 패널 기준을 적용하였다(Skulmoski, Hartman & Krahn, 2007). 아동기 부모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동 및 상담전공 교수 2명, 교사 4명, 임상심리전문가 1명, 아동상담슈퍼바이저 1명, 가족상담사 1명, 상담사 2명, 총 11명의 전문가 패널에게 1차, 2차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분석방법

문항의 적합성 및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SPSS 19.0와 Microsoft Excel를 사용하여 내용타당도(CVR), 신뢰도(Cronbach ′s α),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변이계수)를 검증하였다. 문항에 대한 적합도 내용타당도(CVR)는 0.59, 수렴도 ≦.50, 합의도 ≧.75, 안정도 0.5 < C.V < 0.8 적합도 기준에 따라 문항을 평가하였으며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삭제하였다(이종성, 2001; Dalkey, 1969; Lawshe, 1975).

결 과

부모양육불안을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내용타당도(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적합도 기준에 부적합한 요인들을 선별하였고 요인의 중복, 변별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모차원 3요인, 자녀차원 3요인, 환경차원 3요인으로 수정하였다(표 1). 부모-자녀 동일시, 부모의 책임감, 환경에 대한 염려의 하위요인을 삭제하였고 좋은 부모신념은 부모신념으로, 부모의 특성불안은 부모특성불안, 부모역할에 대한 염려는 부모역할불안으로 수정하였다. 자녀발달에 대한 걱정은 성장 및 발달, 자녀행동에

www.kci.go.kr

표 1.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차원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신뢰도
부모	부모-자녀 동일시	3.91	1.38	0.27	1.50	0.40	0.35	0.77
	좋은 부모신념	4.64	0.50	1	0.50	0.80	0.10	
	부모의 특성불안	4.55	0.69	0.81	0.50	0.80	0.15	
	부모역할에 대한 염려	4.45	0.69	0.81	0.50	0.80	0.15	
	부모의 책임감	3.64	1.43	0.09	1.50	0.25	0.39	
자녀	자녀발달에 대한 걱정	4.73	0.47	1	0.50	0.80	0.09	0.99
	자녀행동에 대한 걱정	4.73	0.47	1	0.50	0.80	0.09	
	자녀에 대한 기대감	4.73	0.47	1	0.50	0.80	0.09	
환경	경제적 염려	4.45	0.93	0.81	0.50	0.80	0.20	0.67
	환경에 대한 염려	3.91	1.45	0.27	1	0.60	0.36	
	지지체계 염려	4.36	1.21	0.81	0.50	0.80	0.27	
	자녀돌봄에 대한 염려	4.45	0.82	0.63	0.50	0.80	0.18	

대한 걱정은 자녀행동, 자녀에 대한 기대감은 기대감으로 수정하였다. 자녀 돌봄에 대한 염려는 돌봄 및 교육기관염려로 수정하였다. 문항의 경우 전문가 패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이 유사한 경우 문항을 통합하고 의미 전달이 부정확한 문항을 보완, 수정하였다. 부모차원에서 부모신념 5문항, 부모특성불안 6문항, 부모역할불안 9문항, 자녀차원에서 성장 및 발달 4문항, 자녀행동 7문항, 기대감 5문항, 환경차원에서 경제적 염려 3문항, 지지체계염려 7문항, 돌봄 및 교육기관염려 4문항, 총 50개의 최종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연구 1.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참여자의 모집과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 회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으로 첫 페이지에 연구의 목적과 참여방법을 안내하였고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예비조사의 참여자는 만 6세에서 만 12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26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부 132명(50.0%), 모 132명(50.0%)이었다.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은 SPSS 19.0 과 R 2.1.9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가정을 확인(assumption checks)하기 위하여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number of factors)를 결정하기 위해 랜덤 데이터에 기초하여 시뮬레이션분석으로 평행분석(based on parall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Marley, 2018). 둘째,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예비문항 50개에서 최종적으로 7요인, 31문항을 도출하였으며 KMO=

www.kci.go.kr

.93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5799(df=465), <.001로 유의하였다.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의 총 설명량은 63.8% 이었으며(표 2), 랜덤 데이터에 기초하여 시뮬레이션분석으로 평행분석 한 초기 고유값(initial eigenvalue)>0 보다 큰 값을 기준으로 스크리 도표법(그림 1)과 이론적 수렴을 고려하여 7개 요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Marley, 2018).

요인 1은 한국문화에서 답습된 부모역할에 대한 걱정과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하는 6개의 문항들로 '부모역할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양육 환경 및 안전과 범죄에 대한 염려를 포함하여 자녀에게 막연하게 불행한 일들이 생길 것 같은 예기불안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들로 '부모특성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 건강에 대한 걱정을 측정하는 4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성장발달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걱정과 자녀 또래와의 비교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하는 4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기대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교사와의 관계 및 적응에 대한 걱정, 돌봄 및 교사에 대한 신뢰부족과 염려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교육환경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양육비용과 자녀 교육비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번호	요인							신뢰도
	1	2	3	4	5	6	7	
문항 2	.425							
문항 3	.655							
문항 12	.817							.91
문항 13	.843							
문항 14	.824							
문항 15	.568							
문항 6		.732						
문항 7		.653						
문항 8		.743						.84
문항 9		.571						
문항 10		.437						
문항 21			.556					
문항 22			.583					
문항 23			.851					.83
문항 24			.433					
문항 25				.664				.89
문항 26				.486				
문항 27				.716				.88
문항 28				.793				
문항 30					.435			
문항 31					.423			
문항 35					.416			.87
문항 47					.760			
문항 48					.750			
문항 37						.801		
문항 38						.984		.81
문항 39						.409		
문항 40							.745	
문항 41							.780	.82
문항 42							.503	
문항 43							.465	
고유값	4.06	3.04	2.61	2.87	2.78	2.07	2.36	
설명량(%)	13.09	9.82	8.42	9.25	8.98	6.68	7.60	
누적설명량(%)	13.1	22.9	31.3	40.5	49.5	56.2	63.8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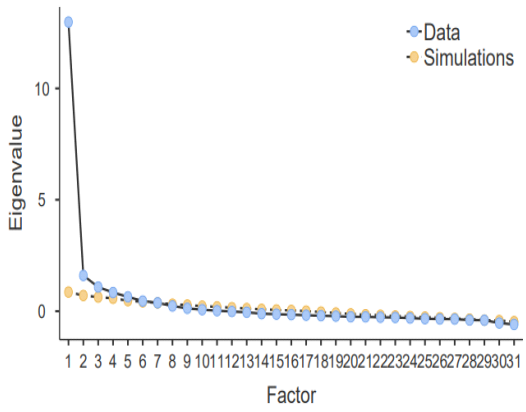


그림 1. 예비문항 요인분석의 스크리 도표(Scree Plot)

로 인한 경제적 염려, 소득 및 지출로 인한 직장 염려를 측정하는 3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경제환경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7은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와의 갈등과 양육 도움 및 지지체계부족으로 인한 염려를 측정하는 4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지지환경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연구 2.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화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예비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만 6세에서 만 12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483명에게 실시하였고 부 228명(47.2%), 모 255명(52.8%)이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1개월 간격을 두고 1차 예비조사에 참여했던 부, 모 111명(23%)을 포함하였다.

측정도구

부모양육불안척도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1문항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척도는 부모역할불안(6문항), 부모특성불안(5문항), 성장발달불안(4문항), 기대불안(4문항), 교육환경불안(5문항), 경제환경불안(3문항), 지지환경불안(4문항) 7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상태-특성불안척도

부모의 불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Spielberger(1970)가 개발하고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이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는 상태불안 20문항, 특성불안 20문항, 총 40문항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는 상태불안 .93, 특성불안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안 .93, 특성불안 .92이었다.

어머니의 양육불안척도

위지희(2014)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어머니의 양육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지희(2014)의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

현온강과 조복희(1994)가 한국 부모들에게 적합하게 개발하고 타당화한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8문항의 Likert 4점 척도이나

www.kci.go.kr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만족(11문항)만 사용하였다. 현온강과 조복희(1994)의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학령기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이선희와 도현심(2014)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의 Likert 4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개입(9문항), 강압(7문항)만 사용하였다. 이선희와 도현심(2014)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는 개입 .82, 강압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입 .92, 강압 .92이었다.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Abidin(1990)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토대로 강희경(2003)이 개발한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17문항),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7문항),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희경(2003)의 연구에서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부모소진 척도

Roskam, Brianda와 Mikolajczak(2018)이 개발한 Parental Burnout Assessment(PBA)를 엄문설과 이양희(2020)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의 Likert 7점 척도로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엄문설과 이양희(2020)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는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분석방법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PSS19.0과 Mplus 5.21을 사용하여 모형 검증, 확인적 요인 분석,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척도의 실증적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90% 신뢰수준으로 연구 모형의 간접 효과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표 3.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하위요인	1	2	3	4	5	6	7	전체
부모역할불안	1							
부모특성불안	.52**	1						
성장발달불안	.53**	.62**	1					
기대불안	.58**	.50**	.63**	1				
교육환경불안	.59**	.65**	.63**	.68**	1			
경제환경불안	.43**	.41**	.44**	.48**	.50**	1		
지지환경불안	.47**	.44**	.46**	.60**	.61**	.60**	1	
전체	.78**	.76**	.78**	.81**	.86**	.67**	.74**	
평균	3.57	3.36	3.32	2.95	2.85	3.19	3.37	3.26
표준편차	.83	.76	.81	.85	.90	.75	.87	.65

***$p < .001$ **$p < .01$ *$p < .05$

www.kci.go.kr

표 4.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적합도	X^2(유의확률)	*df*	RMSEA	TLI	CFI	SRMR
1차순	1238.516 (p<.001)	413	.064	.911	.921	.055
2차순	1329.750 (p<.001)	424	.067	.905	.914	.060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1차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RMSEA .06, TLI와 CFI는 각각 .91과 .92으로 각 요인에 적재된 문항들이 해당 요인의 지표들로 적절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RMSEA .06, TLI와 CFI는 각각 .90과 .91으로 7개 하위요인이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의 적절한 지표로 나타나 7개 하위 요인 모형은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된다(표 4).

타당도 분석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불안 척도 하위요인간의 상관을 살펴보았고 동일한 양육불안 개념을 측정하는 하위요인 간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태-특성불안과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와도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매우 낮은 부적 상관(Cohen, 1988)을 보이거나 유의하지 않아 차별성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준거타당도,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부모역할 불안	부모특성 불안	성장발달 불안	기대 불안	교육환경불안	경제환경불안	지지환경불안
어머니의 양육불안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66***	.50***	.56***	.68***	.68***	.50***	.62***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43***	.32***	.39***	.59***	.48***	.37***	.57***
	자녀에 대한 염려	.51***	.44***	.50***	.69***	.60***	.44***	.61***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41***	.39***	.41***	.58***	.53***	.43***	.63***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31***	.34***	.40***	.59***	.47***	.35***	.52***
STAI	상태불안	.44***	.31***	.31***	.42***	.33***	.39***	.47***
	특성불안	.39***	.33***	.34***	.45***	.37***	.37***	.46***
부모의 양육행동	개입	.36***	.32***	.31***	.41***	.37***	.29***	.37***
	강압	.25***	.21***	.23***	.33***	.28***	.21***	.34***
부모의역할만족도	일반적 만족도	-.11**	-.01	-.08	-.15**	0.09*	-.12**	-.25***

***$p < .001$ **$p < .01$ *$p < .05$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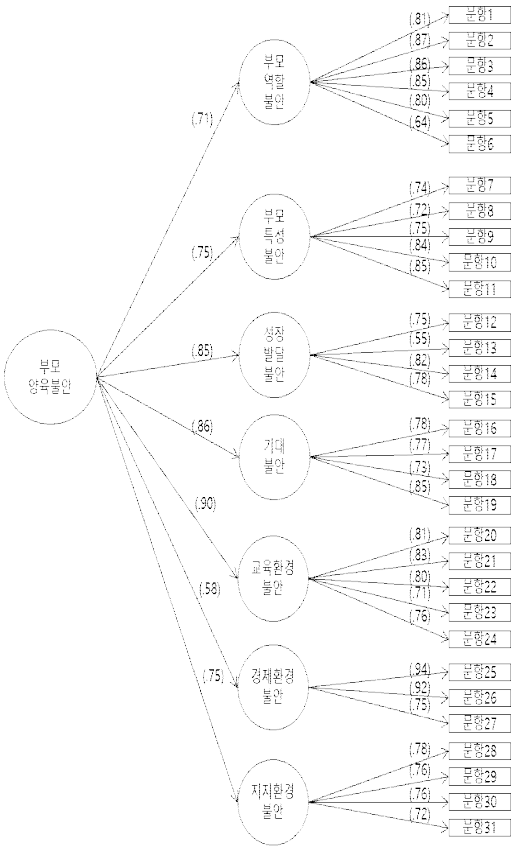


그림 2. 한국형 부모양육불안 최종모형

신뢰도 분석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내적합치도를 살펴보았고 1개월 간격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표 6).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의 실증적인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정상성을 확인하였고,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가 정적 상관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표 7).

표 6. 부모양육불안 신뢰도 분석

	내적합치도 (N=483)	검사-재검사 (N=111)
부모역할불안	.91	.82
부모특성불안	.89	.76
성장발달불안	.81	.81
기대불안	.86	.79
교육환경불안	.89	.81
경제환경불안	.90	.62
지지환경불안	.84	.68
전체	.95	.81

이 연구에서는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 부모양육불안, 부모소진 4개의 잠재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측정변인들의 경로별 표준 요인적재량은 .64~.84,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X^2=116.68(48), p<.001로 나타났고, CFI가 .97, TLI가 .96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RMSEA는 .05으로 적합도를 보였고, SRMR도 .03으로 수용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7.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N=483)

	1	2	3	4
학부모역할스트레스	-			
부모의생활스트레스	.28***	-		
부모양육불안	.56***	.34***	-	
부모소진	.38***	.40***	.48***	-
평 균	2.85	3.14	3.08	1.85
표준편차	.90	.89	.72	1.07
왜 도	-.02	-.10	-.17	1.2
첨 도	-.54	-.36	.04	.46

*p<.05, **p<.01, ***p<.001.

www.kci.go.kr

표 8. 연구모형의 적합도

구분	X^2 (유의확률)	*df*	RMSEA (90%신뢰구간)	CFI	TLI	SRMR
연구모형	109.90 (p<.001)	48	.05(.03~.06)	.97	.96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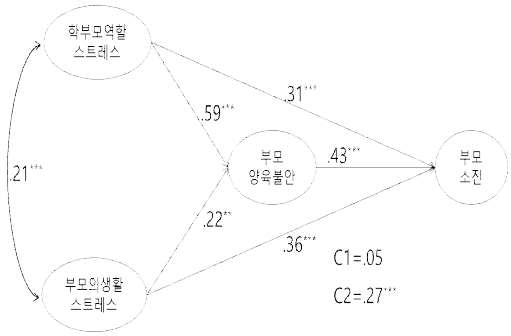


그림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X^2=109.90(48), p<.001로 나타났고, CFI가 .97, TLI가 .96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RMSEA는 .05, SRMR도 .03으로 수용 기준을 충족하였다(표 8).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β=.59, p<.001)와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β=.22, p<.01)는 매개변인인 부모양육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부모양육불안이 부모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43, p<.001). 한편,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는 부모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β=.05, *NS*), 부모양육불안을 매개로 한 간접경로만 유의하였다(β=.31, p<.001).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의 경우, 부모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였으며(β=.27, p<.001) 부모양육불안을 매개로 부모소진에 영향을 주는 간접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β=.36, p<.001).

표 9.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계수 *B*	비표준화계수 *SE*	표준화계수 (β)	*CR*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소진	.07	.09	.05	.76
부모의생활 스트레스	부모소진	.35	.07	.27	4.85***
부모 양육불안	부모소진	.76	.15	.43	4.98***

*p<.05, **p<.01, ***p<.001.

표 10. 연구모형의 효과 분석(N=483)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	부모소진	.05	.25***	.31***
부모의생활 스트레스	→	부모소진	.27***	.10**	.36***
부모양육불안	→	부모소진	.43***	-	.43***

*p<.05, **p<.01, ***p<.001.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는 부모양육불안의 간접경로를 통해 부모소진에 영향을 미치나 부모의 생활스트레스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부모소진에 영향을 미쳤다. 즉,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와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가 부모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양육불안이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연구모형 간접효과 부트스트랩 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B*)	SE	Bootstrap Low	Bootstrap Up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양육 불안→	부모 소진	.31***	.07	.19	.47
부모의생활 스트레스→	부모양육 불안→	부모 소진	.13**	.04	.05	.24

*p<.05, **p<.01, ***p<.001.

www.kci.go.kr

논 의

이 연구는 아동기 자녀(만 6세~만 12세)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및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연구에서 문헌연구 및 경험적 자료를 반영하여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내용타당도에 대한 1, 2차 검증을 실시하여 예비 50문항을 도출하였다. 연구 1에서는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26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31문항을 선정하였다. 연구 2에서는 예비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모 372명과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해 예비조사에 참여했던 부모 111명, 총 483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실증적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연구를 통해 부모, 자녀, 환경차원에서 12개의 하위요인과 88개의 예비문항을 작성하고 델파이 조사 절차에 따라 내용타당도(CVR), 신뢰도(Cronbach ′s α),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변이계수), 검증을 통해 문항의 적합성 및 수정, 보완하였다. 내용타당도(CVR)는 0.59, 수렴도 ≦.50, 합의도 ≧.75, 안정도 0.5 < C.V < 0.8 적합도 기준에 따라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삭제하였고 부모신념 5문항, 부모특성불안 6문항, 부모역할불안 9문항, 성장 및 발달 4문항, 자녀행동 7문항, 기대감 5문항, 경제적 염려 3문항, 지지체계염려 7문항, 돌봄 및 교육기관염려 4문항, 최종예비 50문항을 도출하였다.

둘째, 연구 1에서는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설명량 63.8%,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한 초기 고유값(initial eigenvalue)>0 보다 큰 값을 기준으로 스크리 도표법(scree plot)과 이론적 수렴을 고려하여 7요인, 최종 31문항을 도출하였다. 요인 1은 '부모역할불안'으로 명명하였으며 한국문화에서 답습된 부모 역할에 대한 걱정과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2은 '부모특성불안'으로 명명하였으며 양육 환경 및 안전과 범죄에 대한 염려를 포함하여 자녀에게 막연하게 불행한 일들이 생길 것 같은 예기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성장발달불안'으로 명명하였으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 건강에 대한 걱정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4는 '기대불안'으로 명명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걱정과 자녀 또래와의 비교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5는 '교육환경불안'으로 명명하였으며 아동기 발달단계 과정에서 학교생활로 인하여 교사와의 관계 및 적응에 대한 걱정, 돌봄 및 교사에 대한 신뢰부족과 염려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6은 '경제환경불안'으로 명명하였으며 양육비용과 자녀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염려, 소득 및 지출로 인한 직장염려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7은 '지지환경불안'으로 명명하였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와의 갈등과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 및 지지체계부족으로 인한 염려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전체와 하위 요인 간에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하위 요인들은 전체를 잘

www.kci.go.kr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독립적 요인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 2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척도의 신뢰도는 부모역할불안 .91, 부모특성불안 .89, 성장발달불안 .81, 기대불안 .86, 교육환경불안 .89, 경제환경불안 .90, 지지환경불안 .84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의 7요인 모형은 RMSEA값은 06., TLI와 CFI도 각각 .90과 .91로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7개의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척도의 모든 하위 요인은 전체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척도의 하위 요인 간에도 .41~.68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에 대한 준거타당도는 위지희(2014)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어머니의 양육불안 척도와 통계적 상관을 통해 검증되었다. 수렴 타당도는 Spielberger(1970)이 개발하고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이 표준화한 STAI 상태-특성불안과 이선희와 도현심(2012)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아동기 자녀의 부모양육행동 척도와 통계적 상관을 통해 검증되었다. 변별 타당도는 현온강과 조복희(1994)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부모의 역할만족도와 통계적 상관을 통해 차별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는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맥락 안에서 부모차원, 자녀차원, 환경차원을 반영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성이 입증된 검사도구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검정을 통해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의 실증적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는 부모양육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소진과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부모양육불안도 부모소진과 동일한 방향의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에게 양육 어려움을 유발하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연관이 있었으며 부모양육불안도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과 연관이 있었다(위지희, 2014; 정계숙, 2019; Abidin, 1992; Sayaka et al, 2018; Shigemi & Sachiyo, 2011).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는 부모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와 부모양육불안도 부모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자녀양육 과정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양육 특성으로 인하여 양육 스트레스가 누적된다. 만성적인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소진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강희경, 2003; Hubert & Aujoulat, 2018). 부모양육불안은 부모, 자녀, 환경 차원 등 양육 맥락 안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위협적으로 인지함에 따라 건강한 양육 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Belsky, 1984; Gerain & Zech, 2018; Lin et al, 2021; Mikolajczak et al, 2018).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 부모소진간의 관계에서 부모양육불안의 매개경로를 검증한 결과,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양육불안이 높아졌으며 부모양육불안을 완전매개로 부모소진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는 부모양육불안을 부분매개로 부모소진에 영향을 미쳤다.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교육 기관에서 요구되는 학부모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함에 따라 부모들의 양육불안이 높아져 결국 부모와 자녀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엄연용, 송원영, 2021a; Mikolajczak et

www.kci.go.kr

al, 2018).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도 부모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부모들은 부모 소진을 경험하고 역기능적 양육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엄연용, 송원영, 2021b; 신수희, 2019; Mousavi, 2020; Sorkkila & Aunola, 2020).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소진에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부모양육불안이 중재함을 밝혔으며 양육불안의 매개역할을 밝힌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Mikolajczak et al, 2018).

본 연구는 첫째, 최초로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개발되었던 양육불안척도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양육자를 어머니로 제한함에 따라 부모의 양육불안을 측정하기에는 한계적이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국내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양육불안척도가 개발되었으나 역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하였다. 기존 척도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국내외 양육불안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는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는 향후 역기능적 양육 및 양육문제의 예방적이고 선별적인 차원에서 개입될 수 있는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외에서 개발된 기존 양육불안척도의 경우 단일 문항으로 제작되었거나 신뢰도 및 타당화 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았다. 또한 국내의 경우 부모차원, 자녀차원, 환경차원을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인지적 측면이나 정서적 단일 측면에서 구성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Belsky(1984)의 양육과정모델과 Chase-Lansdale과 Pittman(2002)의 양육결정모델을 반영하여 부모차원, 자녀차원, 환경차원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Clark과 Beck(2010)의 불안 인지 모델을 토대로 양육관련 요인들을 위협적으로 인지함으로써 경험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다차원적 측면을 모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기존 척도의 한계점을 보완하였으며 개인이 경험하는 부모양육불안의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 불안의 다각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는 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불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양육 문제와 근거 기반 양육정책에도 실제적인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부모들이 경험하는 아동기 자녀 양육 특성과 교육환경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육환경불안을 포함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척도를 타당화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의 실증적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양육불안은 부모소진과 같은 역기능적 양육과 부모 정신건강의 예방적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변인임을 밝혔다. 특히, 부모 양육 상담 과정에서 상담 효과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 될 수 있으며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나 종단연구

www.kci.go.kr

를 통해 예측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은 역기능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동시에 중재변인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을 개발하고 전국에서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령과 지역, 아동의 연령분포 등 인구통계적인 차이를 최소화 하고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으나 표준화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의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연구2에서 부와 모의 양육불안의 차이를 살펴보지 못했고 집단분석을 통해 부와 모 각각이 동일한 모형인지 검증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연령, 직업, 경제수준 등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 못했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도 양육자의 성별(부, 모),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에 따른 구조 동일성 검증을 통해 부집단과 모집단들 간에 모형이 동일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의 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부모, 자녀,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부모양육불안 요인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양육불안은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국가적 개입과 정책적 반영이 필요하다. 현 정책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한 양육관련 변인을 선별적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역기능적 양육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양육불안 측정 시스템 도입을 통해 건강한 가족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에도 근거기반 정책에 반영되어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학령기 부모들의 양육불안을 선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다. 그리고 향후 근거기반을 통해 저출산 및 부모양육 관련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희경 (2003).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 21(2), 31-38.

김선미, 김정민 (2020).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상의 사회비교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8(1), 93-109.

신송이 (2016). 모성 이데올로기로 인한 양육 초기 여성의 어려움. 연세상담코칭연구, 6, 57-80.

신수희 (2019). 유아기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를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불안 척도 개발 연구. 아동과 권리, 23(1), 87-109.

엄문설, 이양희 (2020). 한국판 부모 소진 척도 타당화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6(10), 119-133.

엄연용, 송원영 (2021a).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의 매개효과검증. 인문사회 21, 12(3), 1629-1644.

엄연용, 송원영 (2021b). 부모소진을 예측하기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적용. 통계연구, 26(4), 45-66.

엄연용, 송원영 (2022).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불안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4), 1229-1251.

오영진 (2021). 부모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www.kci.go.kr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위지희 (2014). 양육불안척도 개발 및 타당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선남, 이정욱 (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 측정도구 개발. 유아교육연구, 37(4), 297-325.

이선희, 도현심 (2014). 학령 초기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아동학회, 35(6), 111-133.

이원영 (1998). 한국인의 심리에 비추어 본 양육태도. 한국교육문제연구(13), 1-18.

이종성 (2001). 연구방법 21: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장진희 (2021).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과 여성 노동위기 대응과제. 노동N이슈, 2021(8), 1-12.

정계숙 (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과 양육불안이 분노 표현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8(1), 179-206.

정세진, 신나리 (2018). 어머니 양육불안과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녀 기질 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25(4), 155-174.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3(1), 505-512.

현온강, 조복희 (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Abidin,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21*(4), 407-412.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Clark, D. A. & Beck, A. T. (2010) *Cognitive Therapy of Anxiety Disorders*. NY: Guilford Press.

Chase-Lansdale, P. L. & Pittman, L. D. (2002) Welfare Reform and Parenting: Reasonable Expectations. *The Future of Children, 12*(1), 167-185.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Routledge Academic.

Dalkey, N. C. (1969) *The Delphi Method An Experimental Study of Group Opinion,* The Rand Corp., RM-5882-PR.

Eri, O., Toshiyuki, O., Yuka, A. & Zentaro, Y. (2019). National campaign to promote maternal and child health in 21st-century Japan-Healthy Parents and Children 21. **保健医療科学, 68**(1), 2-7.

Gar, N. S. & Hudson, J. L. (2009). The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Anxiety and Treatment Outcome for Childhood Anxiety Disorders. *Behaviour Change-Bundoora Then Sydney Then Bowen Hills, 26*(1), 1-15.

Gerain, P. & Zech, E. (2018). Does informal caregiving lead to parental burnout? Comparing parents having(or not) children with mental and physical issues, *Frontiers in Psychology, 884*(9), 1-10.

Hiroki, M., John, I. T., Shiyu, A., Nao, T. & Seiichi, S. (2012). Maternal childrearing anxiety reflects childrearing burden and quality of life. *Pediatrics International, 54,* 504 - 509.

Howard, M., Muris, P., Loxton, H. & Wege, A. (2017). Anxiety-Proneness, Anxiety Symptoms, and The Role of Parental

www.kci.go.kr

Overprotection in Young South African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1), 262-270.

Hubert, S. & Aujoulat, I. (2018). Parental Burnout: When Exhausted Mothers Open Up, *Frontiers in Psychology, 1021*(9), 1-9.

Katherine A. D. & Henry T. I. (1998).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Maternal Worry Scale for Children With Chronic Illnes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3*(4), 257-266.

Kyuichi, M., Keiko, M. & Kaneo, N. (2015). Understanding Child-Rearing Anxiety of Mothers through a Metacognitive Therapy Model. **不安症研究 , 7**(1), 83 - 91.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Lee, J., Chung, K., Park, H. & Burns, E. (2016). Dimensions of Maternal Self-Concept at Three Stages of Motherhood.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9). 2924-2938.

Lin, G. X., Szczygiel, D., Hansotte, L., Roskam, I. & Mikolajczak, M. (2021). Aiming to be perfect parents increases the risk of parental burnout, but emotional competence mitigates it. *Article de recherche, 294*(3), 1-33.

Lindhout, I., Markus, M., Hoogendijk, T., Borst, S., Maingay, R., Spinhoven, P., Dyck, R. & Boer, F. (2006). Childrearing Style of Anxiety-Disordered Paren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7*(1), 89-102.

Lipani, T. A. & Walker, L. S. (2006). Children's Appraisal and Coping with Pain- Relation to Maternal Ratings of Worry and Restriction in Family Activiti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81,* 667-673.

Makino, K .(1982). Life of mothers with infants and child-rearing anxiety. **家庭教育研究所紀要, 3,** 34-56.

Marley, W. W. (2018).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Guide to Best Practice. *Journal of Black Psychology, 44*(3), 219-246.

Mayumi, N. (2008). Child-Rearing Anxiety and Relationships among Mothers-Focusing on Effects of Relationships among Mothers. **尚絅学 園研究紀要 A .人文社会科学編第 2,** 1-12.

Mikhaylova, Y. & Sivak, E. (2018). Scientific Parenting. What Parents Worry about and What Sources of Information They Use. *Educational Studies Moscow, 2,* 8-25.

Mikolajczak, M., Raes, M. E., Avalosse, H. & Roskam, I. (2018). Exhausted parents: Sociodemographic, child-related, parent-related, parenting and family-functioning correlates of parental burnou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2), 602-614.

Mireia O. U. (2018). Maternal Anxiety and Separation Anxiety in Children Aged Between 3 and 6 Year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yl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39*(8), 621-628.

Mishina, H., Takayama, J. I., Aizawa, S., Tsuchida N. & Sugama, S. (2012). Maternal child rearing anxiety reflects child rearing burden and quality of life. *Pediatrics International, 54,* 504-509.

www.kci.go.kr

Mousavi, S. F. (2020). The Burnout and Exhaustion Due to Parental Responsibilities The Role of Parent-Child Demographic Variables. *Middle Eastern Journal of Disability Studies, 9,* 123-133.

Nejra, V. Z., Maria, T. & Kari, T. (2018). Mothers and Fathers' Worry and Over-Control- One Step Closer to Understanding Early Adolescent Social Anxiety.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9,* 917-927.

Pass, L., Mastroyannopoulou, K., Coker, S., Murray, L. & Dodd, H. (2017). Verbal Information Transfer in Real-Life- When Mothers Worry About Their Child Starting Schoo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8), 2324-2334.

Sayaka, Y., Ryoji, S., Yuka, A., Kaori, I., Toshiyuki, O., Koji, T., Kencho, M., Yoshihisa, Y. & Zentaro, Y.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xiety in mothers and the resources from which they routinely sought advice: The final ''Healthy Parents and Children 21'' survey. **日本公衆衛生雑誌, 65**(7), 334-346.

Scher, A. & Sharabany, R. (2005). Parenting Anxiety and Stress: Does Gender Play a Part at 3 Months of Age. *The Journal of Generic Psychology, 160*(2), 203-213.

Shigemi, T. & Sachiyo, N. (2011). How infant feeding methods relate to anxiety over child-rearing and feelings toward the child. **日本助産学会誌, 25**(2), 225-232.

Skulmoski, G., Hartman, F. & Krahn, J. (2007). The Delphi method for graduate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Research, 6*(1), 1-21.

Sorkkila, M. & Aunola, K. (2020). Risk factors for parental burnout among Finnish parents: the role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3), 648-659.

Stassart, C., Dardenne, B. & Etienne, A. M. (2017). The role of parental anxiety sensitivity and learning experiences in children's anxiety sensitivity. *Th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5*(3), 359-375.

Syazwani, A. M., Iylia, M., Hazhari, I. & Nurul, I. Y.(2020). Working Parents And Emotionally Parental Burnout During Malaysia Movement Control Order(Mco), *European Journal of Molecular & Clinical Medicine*, 7(2), 4930-4953.

Tsukiko, W. & Tanji, H.(2004). Factors Affecting Maternal Anxiety of Mothers with 4month 01d lnfants. *Journal of Jap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6*(2), 47-54.

Yoshida, H., Yamanaka, T., Khono, G., Ota, Y., Nakamura, T., Yamaguchi, K. & Ushijimas, H. (1998). Differences in anxiety variables of mothers rearing firstborn infants: a pilot study of the maternal anxiety screening scale. *International Congress Series -Amsterdam- Excerpta Medica Then Elsevier Science, 1174,* 193-202.

Yuki, S., Tadaaki, K. & Naoko, K. (2008). A Six-month Follow-up Study of Materna

www.kci.go.kr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Japanese. *Maternal Psychological Distress in Japan, 18*(2), 84-87.

Yukiko, M.(2002). Factors in Relieving Maternal Anxiety. **山陽学 園短期大学 紀要, 33**, 123-132.

1차 원고접수 : 2023. 06. 15.
수정원고접수 : 2023. 08. 14.
최종게재결정 : 2023. 08. 30.

www.kci.go.kr

발달지원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23, Vol. 12, No. 2, 45-65
DOI: 10.22839/adp.2023.12.2.4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Parenting Anxiety Scale for the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Yunyong Eom
Konyang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Wonyoung Song
Konyang University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Korean Parenting Anxiety Scale for the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KPAS-ES), and to verify reliability, validity, and empirical usefulness. Through preliminary research for item development, the composition concept of parenting anxiety and preliminary 88 questions were prepared, and the validity of the contents was verified through Delphi survey and a preliminary scale of a total of 50 questions was formed. In Study 1, a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on 264 parents with children aged 6 to 12 years old,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by collecting data. As a result,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and a 7 factor structure, 31 items were confirmed. In Study 2, a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on 483 parents showed a good fit. The stability and suitability of the factor structure for the Korean parenting anxiety scale was confirmed through looking into construct validity,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Finally, through verify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t was confirmed that parenting anxiety is complete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ole stress and parental burnout, and parenting anxiety is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life stress and parental burnout. This scale can be used in parental education and parenting policies, and is expected to be highly utilized as useful data for follow-up studies on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Korean Parenting Anxiety Scale, Childhood Children, parenting stress, parental burnout, Scale development

www.kci.go.kr